

함평군 도시재생 거점공간, '나산할머니다방' 개업

주민 만남과 휴식 공간...누구나 이용 가능 로컬푸드·토스트 등 개발 상품 판매할 계획

함평군이 지난 6일 나산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나산할머니다방 개업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업식에는 나산할머니다방 운영 주체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김인원 이사장을 비롯한 사회단체장,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나산할머니다방이 나산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사랑방이자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점공간으로 거듭날 것을 바라는

개업 고사로 시작되었다. 나산할머니다방은 주민들의 만남과 휴식의 공간으로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나산 로컬푸드, 토스트 등 개발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나산할머니다방 등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을 소생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군에서도 이와 같은 주민들의 의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영광군,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

영광군은 지난 6일 지방보조사업 담당공무원 및 민간보조사업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 문화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교육을 실시했다. 보탬e는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지방보조금 업무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새롭게 구축한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으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계획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업무처리 전 과정을 정보화해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군은 올해 보탬e 시스템 전면 개통에 따라 보조금 담당자 및 민간보조사업자의 이해도를 높여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하고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현장 교육을 의뢰하여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1차 보조금 담당자 교육과 2차 보조사업자 교육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1차에서는 보조사업자 선정, 교부결정 및 정산, 2차에서는 공모사업 신청,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탬e의 업무처리 과정을 참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전면 확대 개통되는 보탬e 시스템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졌다"라고 밝혔으며, "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영광=서희권기자

목포시, 학교·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급식 위생·식재료 안전관리 강화

목포시가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대상으로 목포교육청과 합동으로 식중독 예방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봄 신학기를 맞아 학교·유치원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것으로 집단급식소 사전 방지에 중점을 두고 급식 위생·안전 관리, 식재료 안전관리 등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점검 기간은 지난 4일 시작해 오는 13일까지 계속되며, 점검 대상은 학교(초·중·고·대), 유치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총 155개소 중 94개소가 해당된다.

나머지 61개소는 가을학기에도 추가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보존식 보관 준수 여부,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준수 여부, 식품용기구 등의 세척·살균 관리, 건강진단 실시, 개인위생관리 등 준수여부, 시설·설비 등 환경개선 실태 등이다. 점검과 함께 식중독 예방 자율점검표 배부, 식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한 현장교육도 병행한다.

특히 식중독균으로 잘 알려진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에서도 생존 가능한 장관계 바이러스로, 학교·유치원 등 집단급식 시설을 중심으로 초겨울부터 늦은 봄까지 유행하는 경향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점검 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업소 안에 영업신고증 등을 보관하지 않는 등 중요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송준표기자

무안군, 지방 물가 관리를 위한 물가모니터요원 5명 위촉

월 2회 마트·전통시장·서비스업소 모니터링...72종 물가 정보 제공

무안군은 지난 6일 물가동향 조사와 착한가격업소 관리를 위한 물가모니터요원 5명을 위촉했다.

물가모니터요원은 관내 인구밀집 지역의 마트, 전통시장, 개인서비스업소 등을 중심으로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품목의 가격 동향을 월 2회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명절 성수품 가격 조사, 물가 현장 지도·감독, 무안군 착한가격

업소를 관리하는 등 지역 물가안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위촉 후 열린 교육에서는 물가 모니터링 운영 지침 전달·조사 방침 안내, 최근 물가동향 및 전망 파악,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추진 방안 모색 등 무안군 물가안정 대책을 논의하며 고물가 속에서 물가 안정 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물가모니터요원의 활동으로 조사된 물가 품목 총 72종(농축수산물 28종, 개인서비스요금 44종)은 매월 무안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중요한 물가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해향 지역경제과장은 "최근 물가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높은 물가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며, "군에서는 공공요금 안정화 등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 물가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영암군, 경로당 공동작업장 참여 마을 집중 모집 생산적 복지 주체 어르신 활동 공간 지원, 일과 공동체 생활 동시에 추구



영암군이 다음달 15일까지 경로당 공동작업장을 집중 모집한다.

민선 8기 어르신을 '사회적 복지' 대상으로 '생산적 복지'의 주제로 세우기로 정해 기

조를 잡은 영암군은, 생산적 복지가 이뤄지는 대표 장소의 하나로 마을 경로당의 변신을 지원하고 있다.

휴식과 놀이의 공간이었던 마을 경로당을 작업장과 공동체 활동의 장으로 바꾸면 지원에 나서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집에서 가까운 경로당에 모여 이웃주민과 소일거리로 용돈도 벌고, 서로의 안부도 챙기며 보람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재료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경로당에서 가까운 창고 등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작업장을 마련해도 된다.

현재 영암군에서 경로당 공동작업장에 선정된 곳은, 전통수의를 제작하는 미암면 선황2구 경로당, 텃밭 가꾸기 사업을 하는 서호면 아천마을 경로당 2곳이다.

경로당을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할 마을은, 마을이장이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영암군 노인복지팀으로 신청하면 접수된다.

영암=조대호기자

신안군, 아름다운 풍경 축제 등 기록하고 홍보

남도풍경연구소와 업무 협약 체결

신안군은 지난 6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1004섬 신안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하고 홍보하기 위해 남도풍경연구소(소장 최근영)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남도풍경연구소는 회원들과 신안의 아름다운 풍경과 축제 사진 등 촬영하여 사진집 발간·사진전 개최에 협력하고, 신안군은 행정적·재정적 지원하기로 협약했다.

남도풍경연구소는 2015년부터 남도풍경이야기라는 네이버밴드 활동을 시작으로 약 7,0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전북 지역의 관광객 발굴과 홍보에 힘쓰는 민간 단체이다.

남도풍경연구소는 "이번 업무 협약이 신안군과 남도풍경연구소의 상호 협력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며 "신안의 숨겨진 비경을 사진에 담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영 남도풍경연구소장은 "회원들과 함께 신안군의 다양한 축제와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 속에 담아 신안을 널리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안=이덕주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 온실가스를 없애고
- 미세먼지는 줄이고
- 기후변화까지 막는
-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